

전통(傳統)인가, 구습(舊習)인가?

- 테라와다 불교의 비구니수계와 조계종의 비구니 인사를 보며

불교포커스

2009년 12월 09일 (수) 11:30:15

향산 ✉ nagapura@paran.com

1.

지금 나라 밖 불교계에서는 '비구니 수계(授戒)' 문제로 매우 시끄럽다. 오랜 세월 동안 비구니 계맥이 끊어진 채 이것을 '전통'이라 우기며 비구니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남아시아 테라와다(上座部) 불교계에서, 여기에 반발하고 용감하게 '비구니 수계'를 실행에 옮기는 일이 일어났고 이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가 활발하게 오고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이 테라와다 불교의 중심인 스리랑카, 태국이나 버마(미얀마) 승가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고, 태국 등지에서 계를 받고 출가한 서양 출신 스님들이 테라와다 중심을 벗어난 호주에서 '저지른'(?) 일이기에 아직 "테라와다 불교계 전체에서 빠른 시일 안에 비구니 수계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혁명적' 기대를 하기에는 이르다.



▲ 9월 22일 구족계를 받은 네 명의 비구니

지난 9월 22일 호주의 퍼스(Perth)에서 이뤄진 네 명의 '비구니 수계'는 이 사찰이 소속된 태국 승단(Wat Pah Pong Sangha))에서 엄중 경고를 받아 왔었고, 그 경고를 무시한 대가로 태국의 승단에서는 이 '수계'를 주도한 아잔 브라흐마왓소(Ajahn Brahmavamso) 스님을 제명하였던 것이다. (이번 '수계'에 대해 구미 출신 스님들은 대개 '찬성'의 뜻을 밝히고 있지만, 남아시아의 테라와다 중심부에서는 '전통'을 내세우며 대체로 '반대'하는 분위기이다.)

내 생각으로는 당분간 남아시아의 테라와다 불교 중심의 교단에서 비구니에게 정식으로 구족계를 주고 그들을 동등한 수행자로 예우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지만, 이번 호주에서 이루어진 '수계'처럼 태국 등지로 출가한 서구 출신 비구 스님들을 중심으로 비구니 수계가 계속 이루어지고 그것이 남아시아 테라와다 중심으로 역(逆)수입되거나 역류(逆流)해 들어오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역사의 흐름은 역지로 버텨내려고 애쓰다고 해도 도저히 막아낼 수 없는 큰 힘을 가지게 될 것이고, 이제 주황이나 노란 색 가사를 입은 테라와다 비구니 스님들이 세계 곳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은 확실해 보인다. (심지어 '투옥' 위험이 있는데도 나라 밖으로 가서 구족계를 받고 들어가 활동하다가 실제로 구속 . 수강된 버마의 용감한 비구니 스님도 있었다. - 《현대불교》 2006년 3월 24일 <이병두와 함께 읽는 오늘의 세계불교> '상좌부 불교국가 비구니' 참조)



▲ 비구니 수계를 주도하여 태국 승단에서 제명된 아잔 브라흐마왓소 스님

2.

이제 나라 안을 들여다보자. 아예 여성 성직자인 수녀가 강단에 서서 성경의 가르침을 신도들에게 전할 권리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남성 성직자인 신부를 보조하는 위치에 머물고 있는 가톨릭이나 여자 목사 안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개신교, 수계 자체를 거부당하고 있는 남아시아 불교 국가들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비구니 스님들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 교구본사의 주지를 맡거나 종단의 최고위층에 나아갈 길이 막혀있기는 하지만, 이제 조계종 중앙총회에서도 일정 지분을 확보하고 있고 교육과 복지 등 각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수행자의 본분을 지키는 데에는 아무 어려움도 없다.

특히 1994년 '조계종 개혁' 이후 중앙총회에 10명이 진출하고, 교육원과 포교원의 연구소(실) 사무국장 소임을 관례적으로 맡아오다가 제 31대 법장 총무원장 이후로는 문화부장과 문화국장 소임도 비구니에게 할당되고 있어서, '혁명적' 변화는 아니지만 그래도 '개선'의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었다. 단계를 보자면 포교부장이나 포교원장까지도 비구니 스님이 맡아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우리 불교 판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라는 때 이른 기대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개선'의 흐름에 빨간 신호등이 깜빡거리기 시작했다. 15년 가까이 이어온, 교육원과 포교원 연구소(실)의 사무국장에 비구니를 임명하던 '아름다운 전통'이 깨지고 이 자리에 비구승을 임명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총무원 문화부장과 문화국장, 교육원 . 포교원의 사무국장 소임을 비구니가 맡는다"는 명문 규정이나 합의서는 어디에도 없다. 마찬가지로 "비구니는 종단의 중요 소임을 맡을 수 없다"는 규정 또한 중헌 . 중법에 단 한 줄도 없다.

그런데 이번에 교육원과 포교원에서는 왜 이런 인사를 했을지, 그 이유가 이해되지 않는다. 혹 "비구니 중에서는 그 자리의 최적임자가 없다"거나 "이번에 임명된 비구 사무국장이 가장 적임자"라는 분명한 배경 설명도 없었다.

두 자리에 임명된 인물에 대해서는 나도 알지 못하고 있으니 단정해서 말하기 어렵지만,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이번에 이루어진 교육원과 포교원의 사무국장 임명에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빨간 신호등' 불빛을 보낼 수밖에 없다.

혹 이번 제 33대 총무원장 선거가 오래 전부터 일방적 승리가 예견되고, 결과 또한 그랬기 때문에 비구니 중회의원 10 표의 행방이 그리 중요한 위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는 비구니를 팽(烹)해도 된다고 판단한 것인가? 교육과 포교를 힘차게 추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힘 있는 비구'승을 그 자리에 앉혀야 했는가? 지난 15년 동안 비구니 사무국장을 임명해오던 관례는 전통(傳統)이 아니라 호의적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일시적인 용도였고, 이제 그 용도가 다해서 폐기하는 것인가?

이런저런 가능성을 찾아보아도 우리가 쉽게 납득할만한 그럴듯한 '답'이 나올 것 같지 않다.

빨간 신호등을 무시하고 달리다가는 큰 사고를 내기 쉬운 법이다. 수뇌부에서는 부디 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

3.

'빨간 신호등'이 깜빡거리는 상황이 계속되고 빠른 시일 안에 이를 시정하는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공은 비구니계에 넘어갔다.

첫째, 중앙중회의원 10 석과 총무원 문화부장 . 문화국장 소임을 계속해서 맡기는 것에 만족 . 감사하며 이 자리를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

둘째, "수행자 총수의 반을 차지하는 우리들에게 자리를 더 이상 늘려주지는 못하더라도 있던 자리마저 빼앗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니, 교육원과 포교원의 사무국장 소임만은 비구니에게 다시 돌려 달라"고 간청한다.

셋째, "이번 조치가 전국 비구니계를 무시한 행위이므로 우리는 문화부장과 국장 소임자를 비롯하여 비상근 연구직까지 포함한 전 비구니가 앞으로 종단 소임을 맡지 않고 철수하기로 결의한다"고 선언한 뒤 실제 행동에 옮긴다.

넷째, "종단 소임 같은 것은 출가 수행자의 본분사가 아니다. 우리는 앞으로 수행과 포교, 복지를 실천에 옮기는 일에만 매진하고 일체의 종단 소임을 맡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철저히 수행자의 길에만 나아간다.

다섯째, 현재의 승가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모두 버리고 따로 비구니교단을 세운다.

위의 다섯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서 실행에 옮기고 잘못된 관습을 깨는 일은 현재 종단 권력을 쥐고 있는 비구도 아니고 사회 여론도 아니고 정치권력도 아닌 비구니 스스로에게 주어진 과제이다.

'전통'으로 포장된 '구습'과 '악습'을 깨고 새로운 '아름다운 전통'을 세우는 일, 그 일을 우리 비구니계가 성공적으로 해나갈지 아닐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http://www.bulgyofocus.net/news/articleView.html?idxno=59198>